

# “바쁘게 살지 말라” 요즘도 그땃 되새겨

## 김의식 불화장

절집과 관계없는 이들도 절하면 고즈넉한 산사(山寺), 목탁소리, 풍경소리 그리고 범종소리를 떠올린다. 불자라 해도 법당 안에 들어서면 불상에 참배 할 뻔, 후불탱화나 신중탱화, 감로탱화는 무심히 스친다. 그러나 불상은 경배대상이지만, 이야기 주머니를 조곤조곤 풀어내는 탱화는 안도현 시인이 쓴 동화(연어)에 나오는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를 떠올리게 한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 까만 하늘처럼 //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 무딘 땅처럼” 물이 눈에 들어 비를 빗내고 산에 들어 나무를 빗내듯이 고려시대에는 귀족, 조선시대에는 민중을 빗냈다는 탱화. 요즘에는 어떤 빛을 품고 있을까. 불화장(佛畵匠) 김의식(54)선생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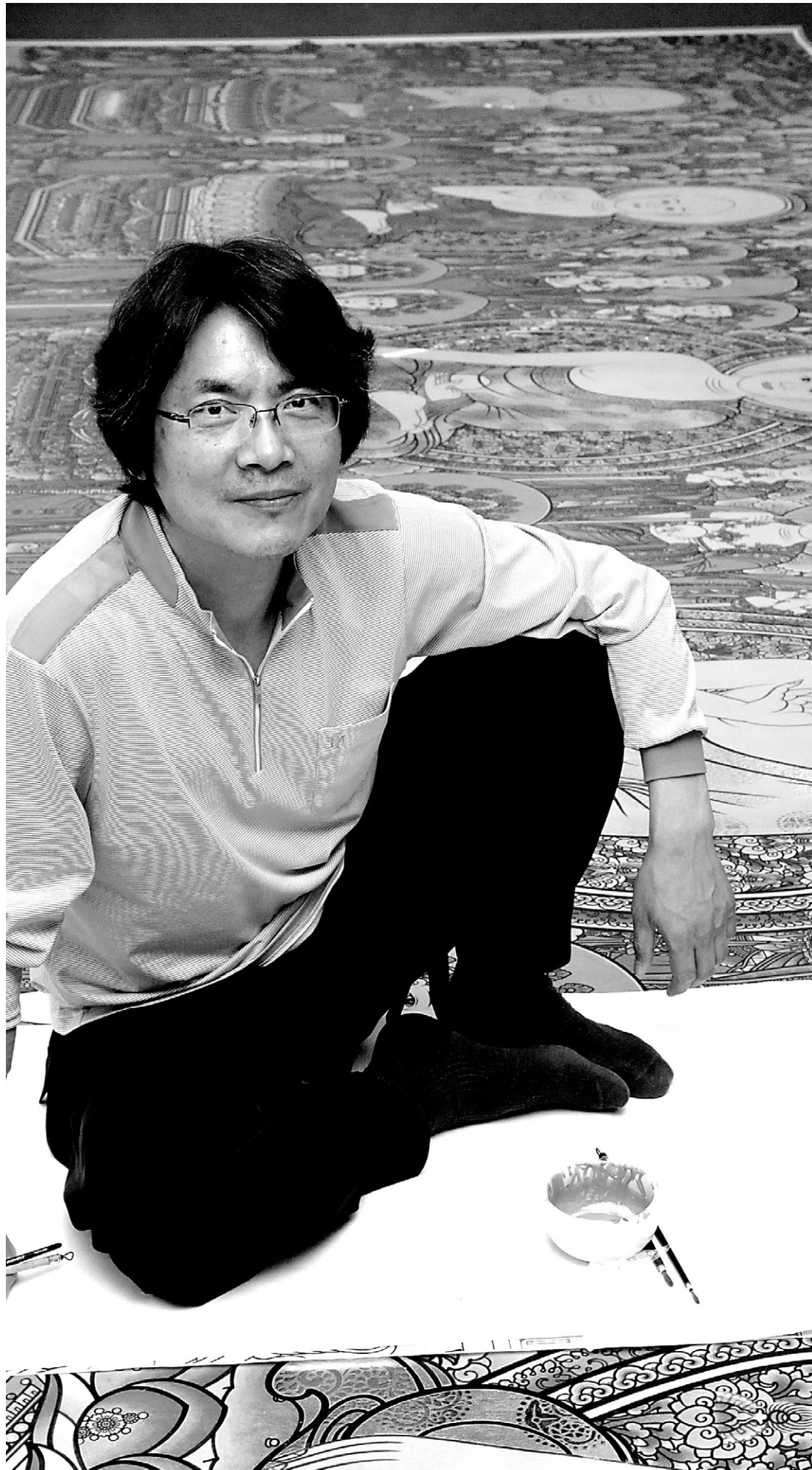
“조계사에서 불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청학 스님이 찾아와서 제 그림을 한 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처음 오신 게 아니라 몇 군데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저희는 재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스님들은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청학 스님은 처음엔 불사를 할 절이 김상사란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청학

### “김상화 보살님에게도 절하라”

계제 ‘군더더기 없어 좋다’ 하셨으나 스님이 엄한 할아버지 같았다

스님은 누가 김상사하고 인연이 될 수 있을까를 이모저모 짚어보고 나서 김의식 선생에게 인연을 맺자고 하면서도 법정 스님 허락을 얻어야 한다면서, 법정 스님과 김상화 보살님이 큰마음을 내신 절이니, 사사로온 욕심은 뒤로 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던지시 비쳤다.

선생이 김상사 극락전 탱화를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법정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김상화 보살도 함께 보였다. “법정 스님이 김상화 보살님한테도 절을 하라고 그러셔서 절을 올렸더니 보살님이 ‘아이고, 내가 살다가 불모(佛母)님 절을 다 받아보네.’ 그러셨어요. 어찌나 민망하던지. 덕조 스님이 자기는 스님하고 긴 얘기를 나눈 적은 별로 없다면 저한테 스님하고 무슨 얘기 나누긴 하시나보죠? 그랬는데 별 얘기 없었어요. 스님께서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으시면 저는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이런 정도. 제가 지은 죄가 많아 그런지 그 어른이 편하기보다는 엄한 할아버지 같았어요. 그랬어요. 엄한 할아버지가 손자 앉혀 놓고 ‘너, 탱화는 제대로 하고 있냐?’ 그런 느낌. 눈매가 날카롭고 무서웠어요. 별 말씀 없었지만 가슴에 가장 남는 말씀은, 바쁘게 살지 말고 쉬엄 쉬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요즘도 그 뜻을 되짚어보곤 해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



단박하고 깔끔한 탱화를 좋아하신 법정 스님 때문에 김상사 극락전 후불탱을 먹바탕에 금니로 조성했다는 불화장 김의식 씨.

요. 사람이 군더더기가 없어서 좋다고. 제가 불교미술을 하면서 느낀 감정이나 불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숨김없이 털어놓다보니. 말을 돌려서 하거나 꾸미지 않는 사람으로는 보셨나봅니다.”

김상사 초기, 선생이 개설한 불화반 수업 때 법정 스님이 자기 다녀가셨다. “조심스런 말씀이지만 주지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은 고개도 넘지않는데 법정 스님은 종종 들여다보셨어요. 그렇다고 티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짝 다녀가시곤 했어요.” 어느 날 법정 스님이 선생에게 불교미술 하는 사람을 왜 금어(金魚)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선생은 태초에 인류가 생기에 앞서, 물고기로 연연해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안에 불성을 일깨워 준 부처님 미소를 잘 드러내라는 뜻에서 금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라며 무척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러셨는데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불모가 뭐냐고. 그래서 옛날에는 탱화나, 단청, 불상조성까지 다 하는 분들을 불모라 했습니디만, 요즘은 세분화되어 불교미술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데, 온 힘을 다 쏟아 부쳐남이야기를 잘 드러내라는 뜻을 담아 그리 부르지 않나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히 그렇게 불리다니 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스님이 금어나 불모가 지닌 뜻을 몰랐다가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주고 싶었기 때

뒀어(木魚)와 목탁(木鐺)으로 이어져 부처님을 의호하고 사부대중을 보듬는다. 그런 까닭으로 불교미술 조각과 탱화, 단청을 삼절이라 하고, 이를 모두 조성하는 장인을 금어나 불모라 하여 존중했으리라. 불교인을 불자라 하는데, 금어나 불모는 듣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호칭이다. 그래서 선생은 금어나 불모라 불리기보다 그저 불화장으로 불리기 바란다.

“법정 스님께서는 당신이 늘 탱화를 봐 오셨던 바로는 채색은 혼란스러운 감이 있으니 좀 담백하고 깔끔하게 조성할 수 없느냐고 하셨어요. 그 어린 성품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먹 바탕에 금니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고 그러셔서 극락전 후불탱은 먹 바탕에 금니로 조성했습니다.” 김상사 불사를 총괄했던 최완수 선생은 극락회상도(極樂會上圖) 조성 당시를 이렇게 돌아보다. “후불탱은 채색이 원칙이죠. 화려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법정 스님은 홍명(紅幀)이 단순하게 보였던 모양이예요.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나도 싫어하지만 법정 스님도 싫어하셨는데 사실 가장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거지요. 그래서 김상사 부처님도 도면에서 복잡한 걸 다 털어내고 조각할 때 의식성이 복잡해 보이면 또 줄이고 줄여서 아주 단순하게 했어요. 요점정리를 해서 단순화시키는 게 우리 민족성이예요. 극락전 후불탱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지요? 법정 스님이 홍명을 주문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흑명(黑幀)이야. 이상하게 법정 스님은 홍명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지장전에서 기어이 홍명을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보아 법정 스님은 붉은 바탕에 금니 탱화를 생각했으나, 장인 의견을 받아들여 검정 바탕에 금니로 조성한 듯하다. “먹 바탕에 금니로 조성하는 탱은 흔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금니로 하면 정갈하고 힘이 있지요. 청학스님이나 법정 스님도 제 선이 참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금니로 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법정 스님은 지장전, 지장시왕탱(地藏十王幀)을 조성할 때는 먹탱도 좋지만 이번에는 홍바탕에 금니로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탱화를 하는데 이 절 다르고 저 절이 다르겠습니까마는 김상사는 두고두고 고맙지요. 뜻 깊은 도량에 솜씨를 남기다니 고맙기 그지없어요.” 꾸밈이 없다.

“눈 오는 날이었어요. 지장전 불사 때문에 연락 받고 김상사에 갔어요. 김상화 보살님 공덕비에 절이라도 올리려고 눈을 치우는데 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요. ‘절을 했느냐’고. 깜짝 놀라 뒤 돌아보니 법정 스님이 서 계셨어요. 스님을 보면 어려웠기에 얘기를 마치고 가자고 하고 쫓겨나 땀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법정 스님 법문을 들으러 간 적도 없습니다. 책도 읽지 않고. 여기 화실에도 스님 책이 더러 있습니다만 스님 책을 읽고 안 읽고는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과는 별개 같더라고요.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뉴스를 듣고 김상사에 갔습니다. 행지실에 누워 계신 스님을 뵈고 내려와서 김상화 보살님 공덕비 앞에 한참을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선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스님 책이 여러 권 있지만 읽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서 스님이 군더더기 없게 좋다고 하셨을까?

### 금어·불모가 뭐냐? 물으신 뜻은 그땃 되새겨 주시려는 방편 법문 김상사 극락전·지장전 탱화 조성

문이 아닐까. 고고학자 김병모는 1961년 여름, 대학생 때 시조인 수로왕릉을 방문했다가 왕릉 때문에 그려진 물고기 한 쌍을 보고 강한 호기심을 느껴, 뿌리를 찾다가 가야·가락국 을 가리키는 가락(karak)은 고대인도 토착어인 구(舊) 드라비다 말로 물고기를 뜻하고, 가야(kaya)는 신(新) 드라비다 말로 물고기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거듭 짚어나가 쌓여온 신앙이 신석기시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켜터, 사람들 삶을 보호하는 신앙으로 발전 바빌로니아 시대로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로 퍼져나가는 한편 흑해를 근거지로 일어난 기마민족인 스키타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전역과 알타이 산악지대 유목민들에게 퍼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쌓여온 신앙은 지역 토착 신앙과 섞여 힌두교와 불교에도 스며들어 절집에서는 물고기가 석가모니를 보호하고, 몽골 사람들은 물고기가 사람들이 잘 사는지 또는 위험에 처했는지 살피며 밥맛을 가리지 않고 보호한다고 여겼다.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은 질병을 고치는 약을 생산하는 커다란 나무뿌리를 지키는 물고기 두 마리가 인류를 모든 질병에서 구해준다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생어는 왕릉과 부처님을 지키고, 절집 처마에 매달린 풍경으로,

**해동 제일약사도량**

# 동해 약령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약령사 법당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고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해에 찌들어 빠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과 정성 터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차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시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령사 주지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큐

#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행상품**

## 미얀마 성지순례

**일 정 : 양곤 / 짜익티오 / 바간 / 헤호 7일 220만원**

**출발 일 : 8월 20일, 9월 7일, 9월 15일 확정**

- 중국 성지순례
  -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7일 135만원
  -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7일 요금문의
-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30여년동안 외길 인생을 달려온 김익식 불화장은 평소 제자들에게 행화를 그릴때는 항상 긴장속에서 정성을 다해 붓을 잡으라고 강조한다.

김장사 지장전은 다른 절 지장전이나 명부전에서 느끼는 어둡고 칙칙한 구석이 없다. 지장보살상 뒤로 돌아가면 위패를 모시는 금바탕에 연록색이 어우러지는 연꽃으로 조성된 부처님 세계가 있다. 은근하고 맑은 연화장 세계. “순금 바탕은 처음이었어요. 연가를 모시는 곳이어서 너무 밝고 화사해도 부담스러울 테니 은은하면서도 화사하게 회화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셨어요. 순금을 바탕에 깎았는데 부담도 가지시고. 그래서 살짝 퍼서 가뽀히 바르면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된 다음에 스님이 편안하고 색다른 맛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칙칙한 느낌이 들거나 무서워서는 안 된다는 한 생각만 가지고 그렸지요.”

어릴 적 만화를 그리면서 화가를 꿈꾸던 소년 김익식.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이 힘들다고 여겼다. 중학교 졸업 무렵 ‘종교미술’을 배워 불의향이 없냐는 친구 편지를 받고 선뜻 서울행열차에 몸을 싣는다. 1975년. 광명 조인생 선생 제자로 들어가 종교미술을 만난다. 무속화를 세 해 남짓 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늘 미진하고 아쉬움이 남았다. 1978년 불교미술대전에 태성불교사가 출품한 행화를 보고 가슴 벅차웠던 의식은 단결음에 태성불교사 박용심 사장을 찾았다. “참 인연이 묘하더라고요. 박용심 사장님을 찾아가서 ‘그림을 배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행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별 희한한 놈도 다 있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며 박용수 선생에게 보냈어요. 박용심 사장님은 제게 늘 ‘존놈, 존놈!’ 그러셨어요. 박용수 선생 밑에서 밑그림 공부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박용수 선생은 불화가 예배 대상인 성보라는 점을 일깨워주셨어요.” 2년 동안 도제 수업을 받은 의식은 군 입대로 잠시 붓을 놓는다. 1983년 제대를 하고 나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불화 그리기를 놓지 않다가 동강 김익홍 선생을 만난다. “동강 선생은 불화 조성의 기초와 이론은 중시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 전통불교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주셨습니다.”

### 스님 책을 읽거나 법문 들은 적 없어 1993년 전승공예부문 대통령상 수상 불모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아

선생은 1990년 제13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천수천안관세음보살’로 대상을, 1993년 제18회 대한민국 전승공예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는다. 1995년 3월 ‘제1회 김익식 불교미술전’을 열어 불화장 세계를 펼쳐며 세상을 향해 섬김 나아간다. 그리고 2005년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의 세계 행화>를 출간, 불교미술을 연구하는 후학들 이정표가 된다. 행화는 작가의 창작품이기에 앞서 예배대상에 출초와 채색 끝내림에서 서로 재주는 다르지만 여럿이 마음 모아 마치 한 사람이 작업한 듯이 한결같은 흐름을 보여야 하는 종합예술이다. 이를 이끄는 불모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화음을 이뤄야 한다. 중국 성지순례를 하던 선생은 베이징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석경산구 취미산 남쪽에 있는 법해사(法海寺)에 들렀을 때 대웅보전 안에 동, 서, 북쪽 벽을 가득 메운 동화벽화와 쌍벽을 이룬다는 커다란 명대벽화를 보고 대뜸 “여럿이 했는데도 조화가 잘 맞았다”고 했다. 같이 간 일행 가운데 불화를 하는 동국대 교수가 “어떻게 여럿이 한 걸 어느나?”고 되물었다. 선생은 “세필 다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붓 못 다룹니다. 마음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람 능력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무늬는 솜씨가 조금 뒤집니다. 그리고 이를 세필한 사람은 이 새를 절대 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강한 절선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꽃을 이렇게 못합니다. 딱딱해지기 때문에”라고 했다. 나중에 안내원에게 물으니 과연 1443년 황제명을 받아 궁정화가인 왕복청, 왕서를 비롯한 중국에서 내로라하는 화사(畫師) 열 다섯 사람이 모여 여섯 달이나 손발 맞춘 뒤에 3년 가까이 걸려 이룬 대작이라고 했다. 불화 가르치는 교수도 놓칠 만큼 호흡이 맞았다는 얘기인데, 수십 년 행화를 해온 마서

운 장인 눈매를 비껴갈 수는 없었다.

“서른 중반까지도 어디 가서 행화 한다는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짓는 것 같아서. 제 아이한테도 평생하고 싶은 일,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죄짓는 기분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행화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사람이요.” 그리워 그리워 했던가?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부처님과 보살을 그려내려는 사려 깊은, 내가 어떻게 ‘감히’ 라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리라. 이 말씀 끝에 불국토를 일구는 마음으로 불국사 축대를 쌓으면서 90미터나 되는 인공석을 자연석에 얹으려고 곡선 따라 날날이 정으로 쪼아 정성껏 다듬어 낸 신라 장인을 떠올렸다. 섬 없이 달려온 40년 가까운 세월, 외길을 걸으며 굵이 굵이 우여곡절은 얼마나 많았을까. “제자들에게 그림이 싫어지면 하지마라. 웬만큼 하려거든 하지마라. 그림이다. 저처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을 때는 밥 먹기 위해서 그림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처럼 모든 것이 넉넉한 세상에 왜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해야 합니까? 제가 우리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말씀인데 ‘살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저는 한창 때 무슨 영예를 누리겠다고, 그걸 왜 하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돌려 사람들에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행화가 앞이 보이지 않는 직업이었지요.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길게 보자, 길게!’ 제자들은 행화를 할 때 제가 무섭다는 말을 가끔 하는데요. 행화는 정말 한 번 빼앗하면 그만입니다. 아가 카메라를 들이댈 때도 긴장을 했습니다마는 젖은 양말로 그림을 밝기만 해도 끝장입니다. 긴장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불화를 조성합니다.” 과연 불모(佛母).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 바람이고파

바람이 좋다. 삼복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바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잠깐이라도 바람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라.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고 말일이다. 시인들이 아무리 바람을 찬미한다 해도 비견 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 감미로운 것들이 많기도 하다.

젓먹이를 품에 안고 흥얼거리는 엄마의 자장가 소리는 감미롭다. 태초에는 우람하게 존재했을 파도들의 축제가 시간이 지남에 농익어 잔잔한 밀물로 밀려오는 포말의 속삭임은 감미롭다. 지적에 두고도 만날 수 없는 나뭇잎의 숙명적인 이별을 절묘하게 만나게 하는 바람의 신비는 감미롭다.

어느 계곡을 지나다보면 풀잎 하나 미동도 하지 않는 고요가 깃들어 있다. 그 곳을 벗어나면 신선지를 만난 듯 바람이 얼굴을 테핑하고 간다. 간다는 것이 이렇게 섬섬하고 속속할 수 있을까. 탐험가에게 간다는 것은 꿈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이지만 바람에게 있어 스쳐간다는 것은 필연과도 같은 것이다. 만약 바람이 나태한 마음이 생긴다거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잠깐이라도 멈춘다면 이미 바람이란 속성을 잃고 만다. 본디 바람은 멈출 수 없는 운명을 임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꽃을 만나고 나무를 만나고 강을 만나고 숲을 만난다 해도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떠나야 하는 바람이여. 위대하다는 말은 바람에게나 불일 수 있는 소중한 말일 듯하다. 어떤 대상을 만난다 해도 집착하지 않는다. 안 · 이 · 비 · 실 · 신 · 의. 그 가운데 무엇 하나 대상인 색 · 성 · 향 · 미 · 촉 · 법에 집착하지 않으니 말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눈이 흑하게 되고, 감미로운 선율에 귀는 금세 팔리고 만다. 코 또한 다를 바 없다. 아름다운 향기에 이내 취하고 마는 것이다.

미당은 그의 작품 <자화상>에서 “나를 키운 건 팔팔이 바람이다”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 바람은 정신세계의 강장제가 되었다. 시인의 정신세계를 탄실하게 하는 데, 존재 있는 것에만 귀 기울이고 관심을 쏟는 세상에 시인은 못 인간이 빚겨 가버린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바람을 소중히 여겼다. 육신을 발육시킨 건 자양분이 있었지만 시인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이었다고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집 떠나는 즐거움에 취해있는 행렬을 본다. 일상을 탈출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판에 박은 일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육신과 정신의 해방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마치 검푸른 바다에 헤엄치고 있는 배는 자유의 상징

이듯이, 틀은 인간을 도식화하고, 틀은 인간을 석고화 시키는 위험 요소가 있다.

집 떠나는 즐거움에 취한 나그네여. 어느 산야, 어느 바닷가를 거닐고, 백사장을 걸 때 발끝에서 사각거리는 어떤 지음의 소리를 들어 보아라. 그리고 조약돌이 밟힐 때마다 나지막한 어떤 소리를 들어 보아야 한다. 그 소리는 자연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요, 태고의 소리다. 감미로운 속에는 고통이 스며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감미로운 것을 감미롭다고만 생각한다면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스스로 반납하는 꼴이다.

감미롭게 밟히는 조약돌은 그 고향이 산이었다. 계곡의 서릿발 같은 돌이었다. 이 계곡에서 혹은 저 숲속에서 풍상에 씻기고 부드러운 물결에 다듬어졌다. 어느 힘센 장정들의 목도에 의해 운반된 것이 아니라 침식작용이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조금씩 전진하여 나그네가 서 있는 이곳까지 온 것이다.

### 미당... “나 키운 건 8할이 바람”

### 바람은 소통의 대명사

### 소통없는 세상, 오해 양산

파도가 머금고 간 백사장은 정적이 남는다. 인간이 안고 있는 외로움의 붓집들을 파도 저 멀리 실어 보냈기 때문이다. 청순함이 펼쳐진다. 마치 주단을 깔아 놓은 듯. 그곳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듯 적혀 있는 발자국들. 자기보다 아름다운 인간의 발자국은 어느 청량음료 보다 가슴을 후련하게 한다. 그들만의 밀려가.

섭리의 이면이 금금하다. 아마 진공상태가 아닐까. 일체의 색(色)과 상(相)을 초월한 세계이므로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만 있을 것 같다. 물질도 아니요 형상도 없는 것이 바람의 속성이니 말이다.

흔적도 없다. 빛깔도 없다. 목소리도 없다. 세상에 바람보다 더 쓸쓸한 존재들이 있을까. 그 저 길옆에 핀 꽃잎을 한두 번 흔들어 보기도 하고 산속이 수련대는 모습에서 자신을 드러낼 뿐이다. 바람은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 선비의 모습이랄까. 목욕의 초탈자 바람이여. 끝없는 욕망의 항해사인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가소로운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나는 바람이 좋다. 바람이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람은 소통의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소통이 없는 세상은 오해라는 이물질을 양산한다.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 종일 스님의 비로자나불

천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나무 암범람함캄 청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극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정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래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이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중

총일 편저 박준기 영역 193쪽 값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보경사 031)755-3336

##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주크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고추구 12B 인자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불룩 절선 10년 5년 불해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 고풍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빈도저트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형)**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명사용) 탈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가장 밝은 건전지 초 (LED방)  
▶ 방생, 탐몰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